

한국군, SLBM 잠수함 수중 시험 발사 성공 ... 8번째 보유국



▲ 해군의 첫 번째 5000톤급 잠수함 도산안학호함 (KSS-1의) 항해 모습. 사진=대한항공 해군

한국군이 최근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탑재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이 한 소식통은 이날 '해군 잠수함 '도산안학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비공개 수중 사출 시험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1일 처음 진행됐다'며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K-조선, 글로벌 1위 탈환 '순항 중'

2020년실업률 감소로 글로벌 조선시장이 고부가·친환경 선박으로 재편되면서 한국 조선이 '빅풀이' 수주로 올해 글로벌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9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 조선산업은 2019년 이후 글로벌 선박시장 수주비중이 급상승하면서 조선강국 지위를 회복했다. 한국 수주 비중은 2016~2018년 30%에서 2020년 36%, 2021년 1~7월 43%로 최근 급상승했다.

산업동향자질부는 2030년 글로벌 친환경선박 수주 비중 75%, 자율운항선박 50%로 확대해 글로벌 1위를 수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 조선 생산성도 지난해 대비 30% 향상시키기로 했다.

글로벌 발주량이 늘면서 한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세계 발주량은 이미 지난해 전

반은 1~2차례 비공개 시험발사를 더 진행한 뒤 SLBM을 양산, 실전배치할 전망이다. 지난해 13일 취역한 도산안학호함에 탑재될 전망이다. 해군의 첫 3천급 잠수함인 도산안학호함은 SLBM 발사관 6개를 갖추고 있다. 수직발사관은 SLBM을 수면 밖 일정한 높이로 쏘 올린 뒤 미사일 연진을 점화해 목표 지점으로 날아가는 콜드런치(cold launch) 방식을 쓴다.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인 '현무 2B'를 기반으로 개발한 SLBM은 '현무 4-1'로 명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SLBM은 잠수함 특유의 잠항 능력과 수중발사체계가 가지는 은밀성에 탄도미사일이 가지는 파괴력이 더해져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SLBM 개발이 사실상 완료돼 한국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사실상 세계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국방부는 SLBM 개발 상황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국방부는 "단위전력에 대한 개발비율 시험은 보안상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체보다 33%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내 수주는 58% 늘어 최근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 선박시장은 페리다인도 고부가·친환경 선박 위주로 재편돼 컨테이너마스터와 기술에 강점이 있는 한국 조선사들의 성과가 높아졌다.

글로벌 발주 증 고부가·친환경 선박 비중은 2019년 각각 26%, 30%에서 올해 7월 48%, 34%로 급상승했다. 올해 1~7월 세계 조선발주 중 한국 수주 비중은 고부가 63%, 친환경 66%로 쏠려나왔다.

앞으로 자율운항선박도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 총 1,600억원의 투입, 2025년 기술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제규범 마련이 시급해 정부와 업계가 자율운항선박 개발·국제표준화와 국제해사기구(IMO) 등과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하기로 했다.

'귀한 몸'... 대학들, 신입생 유치전 치열



▲ 연가에 지원한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사진=shutterstock

각 대학의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인구 감소와 경쟁력 저하 등 위기에 처한 지방의 대학들이 각종 장학금은 물론 수백만 원의 학원 장려금까지 내려고 밤 그대들 '신입생 모시기'에 전력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일 'MBC'에 따르면 2021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98.6%로 비합 사태를 겪은 지방의 한국립대학교는 물론 신입생 모집에서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폐지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하지 않거나, 또 수능 성적이 우수한 기준도 합격자에게는 등록금을 물론 최대 500만 원의 학원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외유학 과정 우선 선발도 내걸었다.

지방의 사립대학 등은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신입생 확보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다.

충북의 한 사립대는 입시에 반영되는 내신 과목의 수를 줄여 학교 문턱을 낮췄고, 또 다른 사립대는 영남원텐에너메이컨이나 뷰티케어 같이 취업에 유리한 화과를 신설하는 등 학과 개편에 나섰다.

이 지역의 한 사립대는 지역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최초 합격자 전환에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도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졸자 중 대학 진학 희망자와 재수생 등을 고려한 입학 지원 수는 47만 명이었다. 이는 대학 모집 정원인 48만 5,318명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사랑님,
힘내세요!
대박나게 도와 드릴게요.

대박사인

배너,메뉴보드,전단,명함등
각종 실내외 사인부터
광고,디자인까지-

Tel.(323)641-7907

1890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07